



자메이카의 우서인 볼트가 지난 20일 베를린에서 벌어진 2009 IAAF(국제육상경기연맹)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남자 200m 결승에서 역주하고 있다. 볼트는 이날 19.19초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번개’ 볼트 200m도 세계신 우승

베를린세계육상 자신의 기록 0.11초 앞당긴 19초19 골인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서인 볼트(23·자메이카)가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남자 200m에서도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했다.

볼트는 2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픽아수트דיון에서 펼쳐진 대회 남자 200m 결승에서 19초19를 찍어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자신이 세운 종전 세계기록 19초30을 0.11초나 앞당긴 세계신기록으로 정상을 밟았다.

지난해 올림픽에서 역대 9번째로 100m와 200m를 동시에 석권하고 육상사에서 처음으로 100m-200m 세계신기록을 동시에 보유한 슈퍼스타로서 당연한 자존심이었다.

타이슨 케이(미국)가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해 경쟁자가 없었지만 기록작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한번의 부정출발 후 스타트 총성과 함께 따돌린 채 우승을 결정짓고 이날 자신의 23번째 생일을 자축했다.

준결승에서 20초08을 찍고 전체 1위로 결

승에 오른 볼트는 이날 결승에서 5레이인을 배정받고 또 하나의 세계신기록에 도전했다.

볼트는 200m 예선에서 20초70, 준결승에서 20초41로 계속 기록을 줄여가며 결승에 올라 새로운 기록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지난해 올림픽에서 역대 9번째로 100m와

200m를 동시에 석권하고 육상사에서 처음으로 100m-200m 세계신기록을 동시에 보

유한 슈퍼스타로서 당연한 자존심이었다.

타이슨 케이(미국)가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해 경쟁자가 없었지만 기록작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한번의 부정출발 후 스타트 총성과 함께 따돌린 채 우승을 결정짓고 이날 자신의 23번째 생일을 자축했다.

/연합뉴스

주로에서 이미 6번 레인의 알론소 에드워드(파나마)를 따라잡았고 이후 직선구로부터는 100m 넘게 단독질주를 이어갔다.

올림픽아수트דיון은 가득 메운 7만여 팬들은 볼트의 우승을 확신한 뒤 신기록 달성을 염두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전광판에 순간적으로 19초20이라는 숫자가 켜자마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역사적인 순간을 기뻐했다. 공식기록은 19초19로 0.01초가 줄었고 팬들은 더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2위는 19초81을 찍은 에드워드가, 3위는 19초85로 들어온 월러스 스피어먼(미국)이 각각 차지했다.

볼트는 스타트 반응속도에서도 0.133초로 가장 빨랐고 이후에는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로 쭉쭉 뻗어나가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린 채 우승을 결정짓고 이날 자신의 23번째 생일을 자축했다.

/연합뉴스

“너에게는 못 져” 상무 vs 전남 ‘맞짱’

상무, 오늘 흄에서 최성국 앞세워 5연패 탈출 노려



위기의 상무가 꽈조의 상승세 전남과 맞대결을 갖는다.

광주 상무는 22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K-리그 20라운드 ‘호남더비’를 갖는다.

반면 전남은 4경기 무패 행진 속에 6위까지 뛰어올랐다.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 15일 강원 FC와의 경기에서 알렉산더, 슈바, 이규로, 김민호의 골 퍼레이드 속에 4-1 대승을 거두고 4경기에서 2승2무를 기록하면서 순위 싸움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상무는 최근 5연패의 높이 빠지며 1위에서 4위까지 추락했다. 지난 7월4일 전북 대체와의 경기에서 2-3으로 패하며 흠무패행진이 깨진 뒤 상무는 흄에서 3경기 연속 승점을 챙기지 못했다. 고공행진을

물러설 수 없는 상무는 가속도가 붙은 전남은 ‘호남더비’라는 자존심 싸움도 벌여야 한다. 2003년 이후 상무는 전남과 8번의 맞대결에서 2승4무2패로 호각지세를 보였다. 상무와 전남은 각각 8골과 7골을 주고 받으며 팽팽한 공격을 펼쳤다.

최근 전적은 상무가 앞선다. 상무는 2006년 3월 18일 전남과의 흄 경기 이후 4경기 연속 무패속에 1승 3무의 성적을 기록했다.

상무는 최소 실점 1위의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승부는 핵심 공격수 최성국·김명중의 발끝에 달려있다. 두 콤비의 득점이 가능된 9경기에서 상무는 8승을 거두는 저력을 과시했다.

또 지난주 인천과의 대결에서 경고누적으로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던 중원의 지휘자 최원권이 출격을 준비하는 등 상무는 연패 탈출을 향한 총력전을 벌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층(010-5619-4747)

생활 게시판

화축

▲김영진·오명주씨 장남 치육군 최광섭·이복순씨 장녀 솔이(광주여대 기획조정처)양=22일(토) 낮 12시 메리어트 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윤무룡·이명옥씨 장남 한솔(강릉주문초등학교)군 박정종((구)진영스튜디오)·이경희(포토메탈)씨 장녀 진영(강릉주문초등학교)양=9월 12일(토)

오후 2시 강릉 미안지웨딩홀 컨벤션센터 1층(아름다운홀) 피로연 일시 22일(토) 낮 12시30분 광주 서남교회 회의장

부음

▲김단규씨 별세 윤겸·윤진·호진씨 부친상=발인 23일(일)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20호실. 062-670-4444.

▲김재현씨 별세 남현·숙현씨 부친상=발인 23일(일)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20호. 062-670-4444.

▲최덕순씨 별세 김재호·재무·재석·정원·동순·봉순·삼순·옥순·재님씨 모친상=발인 23일(일)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400.

▲김선이씨 별세 김진오·진영·진우·진용·연신씨 모친상=발인 22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22일(토)

▲KLPGA 넥스 마스터피스 2R (13:00·MBCESPN)

▲프로야구 <삼성: 두산>(18:10·KBSN SPORTS), <KIA: SK>(18:20·MBCEESPN), <LG: 롯데>(18:15·SBS스포츠), <한화: 하이로즈>(18:15Xports)

▲K리그<경남: 부산>(20:30·KBSN SPORTS)

▲프리미어리그<위건: 맨체스터 Utd>(23:00·MBCESPN)

23일(일)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 (00:45·Xports)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교장·교감·전문직 인사

광주시교육청

〈초등〉

◇교육전문직

▲교원정책과장 박종국 ▲교육정책

과장 정필연 ▲교원정책과 초등인사팀

담당 임주영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

구부장 박봉순 ▲교육정보원 교육정

보부장 고성자 ▲동부교육청 최영순

▲서부교육청 김경우 ▲평생교육체육

과 활동체육 ▲서부교육청 김현덕 ▲동

부교육청 박숙희 ▲교육정책과 김미

자 ▲교육정책과 정영숙 ▲장학진흥

과 이승재 ▲교원정책과 정성숙 ▲장

학진흥과 김경례 ▲서부 채미숙

◇교장 승진

▲송정왕당 박병호 ▲광주서산 이

봉현 ▲광주서립 서백환 ▲광주우산

최두정 ▲광주중흥 김일남 ▲광주지

산 김석우 ▲광주동 박봉현 ▲광주수

창 신중재 ▲하남 정찬희 ▲대촌중왕

최종표 ▲무학 김용남 ▲임곡 기남서

◇교장 공동

▲경양 최수길 ▲송정 방동오

◇교장 중임

▲마재 기용위 ▲광주동산 최서호

▲매곡 문행룡 ▲각화 박찬재 ▲용두

김성수 ▲월계 이길택 ▲금부 박중기

▲운천 이병국 ▲운남 박부식 ▲대반

정용효 ▲치평 김철수 ▲월곡 김철

▲금구 우인호

◇교장 전보

▲하백 체수길 ▲문산 양우열 ▲계

수 김선국 ▲광주계립 우홍민 ▲광주

문화 김용옥 ▲신암 김철수 ▲선창

강성곤 ▲조봉 이미숙 ▲만호 흥천기

◇교감 승진

▲광주백운 신현태 ▲광주서산 조

완의 ▲운리 이영대 ▲효관 박종우

▲빛고을 조영욱 ▲송정서 이기화

▲광주풍향 신종희 ▲광주월산 장우

전남도교육청

〈초등〉

◇교육전문직(교육장·장학관·장학

사 전보

▲장성교육청 교육장 안평군 ▲신

안교육청 교육장 나연수 ▲신안교육

청 교육과장 명세영 ▲도 교육청 초

등교육과 김정희 ▲초등교육과 양은

주 ▲교육정보화과 백남근 ▲교육정

보화과 정해자 ▲교육과학연구원 한

연숙 ▲교육정보원 이명숙 ▲학생교

육원 회화체육과 김현우 ▲교

교원 교육과 정현우 ▲교원 교육과

정현우 ▲교원 교육과 정현우 ▲교

원 교육과 정현우 ▲교원 교육과

정현우 ▲교원 교육과 정현우 ▲교

원 교육과 정현우 ▲교원 교육과

정현우 ▲교원 교육과 정현우 ▲교

원 교육과 정현우 ▲교원 교육과

정현우 ▲교원 교육과 정현우 ▲교

원 교육과 정현우 ▲교원 교육과

정현우 ▲교원 교육과 정현우 ▲교

원 교육과 정현우 ▲교원 교육과

정현우 ▲교원 교육과 정현우 ▲교

원 교육과 정현우 ▲교원 교육과

정현우 ▲교원 교육과 정현우 ▲교</p